

#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 약동하는 봄, 희망의 앙상블



드뷔시, 라벨, 차이코프스키의  
예술혼이 빛어낸  
위대한 교향악의 무대로 모십니다.

주최 **YTN**

2011년 4월 26일(화) 오후 7:30  
국립중앙극장 해오름(대극장)

■ 티켓가격: VIP석 - ₩ 120,000 R석 - ₩ 100,000 S석 - ₩ 80,000 A석 - ₩ 50,000  
■ 예매 및 문의:  1544-1555

2011년 3월 <제 91 호>

•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02-398-8000 • 제보: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200-2424



# 매체 이용률 1위, YTN

# 목차

02 커버스토리 \_ YTN, 매체 이용률 1위

04 커버스토리

- ① 콘텐츠사업팀의 노력도 한 몫 했다! \_ 곽은정
- ② '매체 이용률 1위' - 발로 뛴 성과 \_ 김호석
- ③ 영화에서도 돋보이는 YTN의 위상 \_ 김선희

08 핫이슈 \_ YTN WORLD

YTN 해외방송 10년, 새 10년을 준비한다 \_ 강홍식  
 더욱 큰 사랑을 받는 YTN WORLD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_ 권영건  
 전 세계 한민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_ 남문기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 준 YTN이라는 비옥한 토양 \_ 박사유

12 특별기고

세상을 바꾸는 밝은 빛 '희망의 우물 콘서트' \_ 김인경

14 ZOOM IN \_ YTN을 빛낸 수상자

- ① 제 5회 케이블TV방송대상 (한국전쟁을 말하다) 수상기 \_ 임수근
- ② 제 42회 한국기자상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수상기 \_ 김문경

16 사건취재기

- ① 삼호주얼리호 오만 입항 취재기 \_ 강영관
- ② 강원 영동지역 폭설 취재기 \_ 이성우

20 프로그램제작기

- ① YTN 스페셜 (스마트 혁명) 3부작 제작기 \_ 염혜원
- ② 정애숙의 <공감> 인터뷰 \_ 정애숙

24 콘텐츠확대

- ① 사이언스 <보물섬> 과학중점학교에 가다 \_ 박채운  
 <보물섬>이 안겨 준 즐거움 \_ 박혜현
- ② 본격 연예정보 프로그램 <YTN 연예 특특> \_ 전진영
- ③ 언론사 최초 백만 다운로드 돌파! \_ 구본승
- ④ 출퇴근시간을 노려라! \_ 박만희

32 기획취재 \_ YTN 사람

앵커 이승현입니다 \_ 이승현

34 Club \_ 동호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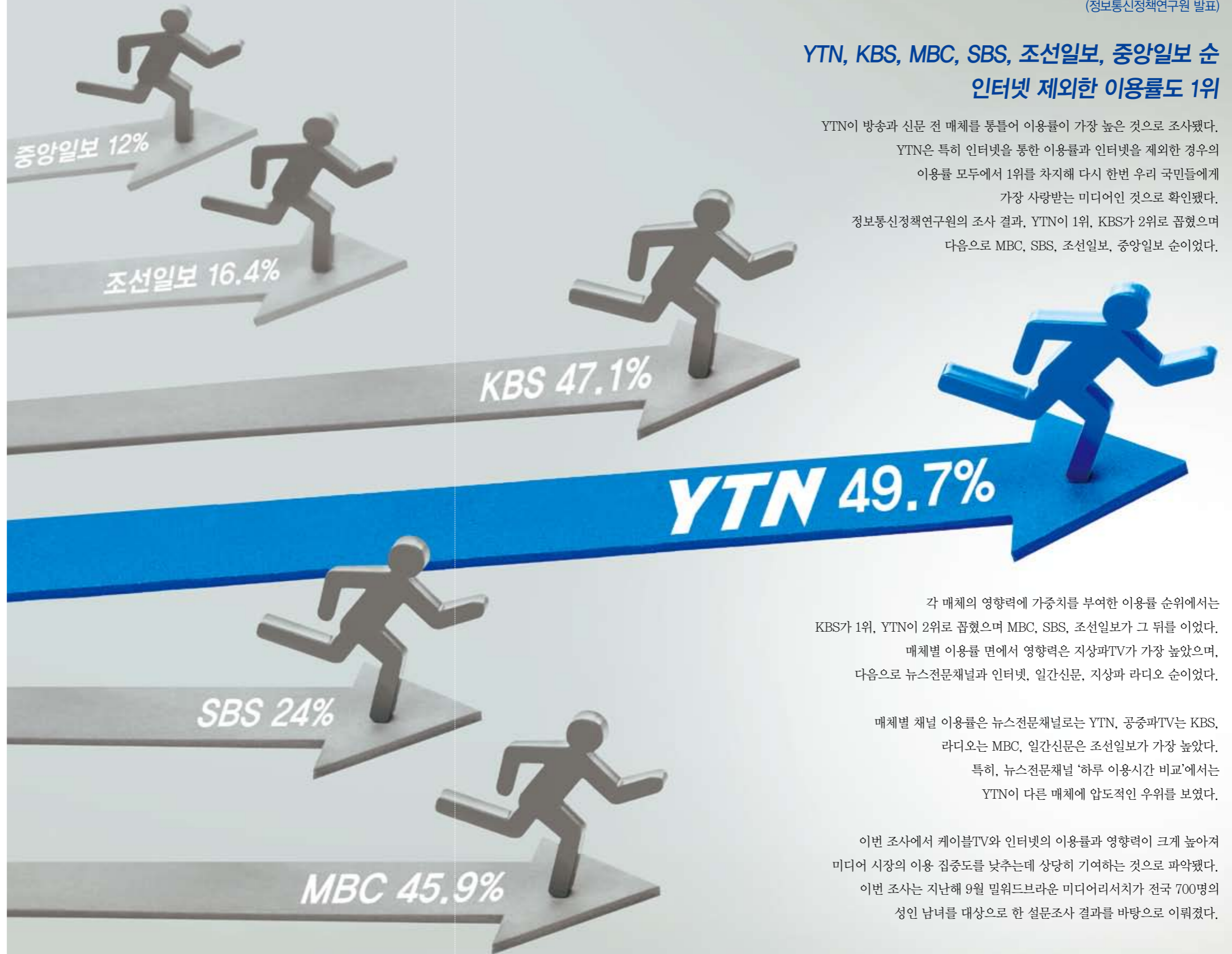
산악회 \_ 박종대

35 포토뉴스/게시판



<표지사진>  
 매체 이용률 1위, YTN

## 커버 스토리 YTN, 매체 이용률 1위



\*매체 이용률 표본오차 ±3.7% 포인트, 신뢰구간 95% 수준

# 매체 이용률 1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YTN,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순  
 인터넷 제외한 이용률도 1위**

YTN이 방송과 신문 전 매체를 통틀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YTN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이용률과 인터넷을 제외한 경우의 이용률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디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YTN이 1위, KBS가 2위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순이었다.

각 매체의 영향력에 가중치를 부여한 이용률 순위에서는 KBS가 1위, YTN이 2위로 꼽혔으며 MBC, SBS, 조선일보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별 이용률 면에서 영향력은 지상파TV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뉴스전문채널과 인터넷, 일간신문, 지상파 라디오 순이었다.

매체별 채널 이용률은 뉴스전문채널로는 YTN, 공중파TV는 KBS, 라디오는 MBC, 일간신문은 조선일보가 가장 높았다.  
 특히, 뉴스전문채널 '하루 이용시간 비교'에서는 YTN이 다른 매체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케이블TV와 인터넷의 이용률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져 미디어 시장의 이용 집중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7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매체 이용률 1위’ – 콘텐츠사업팀의 노력도 한 몫 했다!

# 생활 속에 스며든 YTN, 이제 눈과 귀가 되었다

IT 기술의 발전과 방송의 디지털화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미디어간 융합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이제 개개인은 넘쳐나는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골라 봐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이러한 방송 환경의 변화 속에서 YTN은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반가운 소식이 발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방송과 신문 전 매체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 이용률’에서 YTN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는 콘텐츠사업팀의 노력도 한 몫 했다. 24시간 깨어있는 방송 YTN은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시사정보 등을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사업팀은 YTN의 이미지를 높이고 YTN 뉴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디서든지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YTN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신한은행 전국 약 960여 개 지점에 위성방송을 통해 YTN 뉴스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수협 전 지점과 국민은행 1,200여 개 전 지점, 기업은행 700여 개 전 지점 등에서 47인치 LCD TV를 통해 영업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YTN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LED 전광판에서는 YTN의 ‘이 시각 주요뉴스’와 속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YTN 뉴스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도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 역사 1,200여 곳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생생한 YTN 뉴스가 방송되고 있고, 올해는 5·6·7·8호선 128개 역사와 1,588량 전동차 내부 LCD 12,000대의 모니터에도 뉴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도 YTN은 ‘뉴스의 오아시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마포구 관내 주요공공시설 100여 곳과 서울시 청사 로비, 서울중앙우체국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매시간 정시마다 YTN 실시간 뉴스가 방송 중이고, 시청 앞과 서울역 앞 등의 주요 옥외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YTN의 ‘이 시각 주요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성균관대를 비롯한 대학 캠퍼스와 26개 종합병원, 14,000개 개인병원, KTX 서울역과 용산역도 빼놓을 수 없는 YTN 시청구역이다.

올해는 신경주역의 승강장, 대합실, 역무실, 고객대기실과 인천과 용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 버스정류장에서도 기차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YTN 뉴스를 볼 수 있게 된다.

어느덧 우리는 YTN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YTN 콘텐츠 확대 활동 하나하나가 밑거름이 되어 매체이용률 1위를 달성하게 됐다.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는 YTN의 영향력이 다른 매체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올라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의 살아있는 생생한 뉴스를 24시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 YTN, 언제 어디서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기처럼 YTN을 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콘텐츠사업팀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곽은정 홍보팀



‘매체 이용률 1위’ – 발로 뚫은 성과

# 어디서든 YTN을 볼 수 있도록

지하철·기차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YTN 방송노출을 위해 힘쓴 결과, ‘매체 이용률 1위’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뉴스의 홍수 속에 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 YTN은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미디어로서의 책임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어느 곳이든 공공장소에서 YTN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한테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YTN뉴스 노출 확대로 마케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매체 이용률 1위’라는 결과는 콘텐츠사업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는 보도국은 물론 각 부서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공장소에서의 YTN 방송확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전국 곳곳 공공장소에서 YTN 뉴스를 보게 된다면 YTN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YTN에 대한 접근성이 쉬어짐으로써 호감도와 친밀도가 높아져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송’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든 점은?

후발업체들의 공격적인 뉴스공급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많다. YTN의 뉴스공급 대원칙이 유료 공급이었다. 하지만 후발 경쟁매체에서 무상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돈을 지불하면서 까지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쟁매체들의 인적·물적 투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용자측에서 원하는 뉴스의 디자인과 포맷, 화면구성, CG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들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

시민들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YTN 뉴스에 시선을 고정해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기도 하다. 이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뉴스서비스가 닿지 않은 곳이 더 많고 지금도 뉴스정보에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중소도시와 지자체의 공공장소에 뉴스공급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교적 서울과 수도권은 정보와 뉴스서비스에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오지라도 YTN 뉴스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달려갈 것이다.

김호석 차장대우 콘텐츠사업팀



# 영화의 현실감 높이는 방송 뉴스도 역시 YTN

흔히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감독이나 영화제작자 측은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특히 방송 뉴스가 영화 속에서 현실감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대목을 맞은 극장가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 야구부인 충주 청심학교 야구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 '글러브'입니다. 한 때 최고의 실력으로 프로야구 간판 투수였던 김상남은 음주와 폭행 사건으로 제명 위기에 처합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매니저의 계획에 따라 상남이 청각 장애 야구부의 임시 코치를 맡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상남은 야구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서서히 동화됩니다. 아이들의 꿈인 1승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훈련에 몰두하던 상남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제명 소식이 생중계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YTN 성문규 앵커]  
“음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의 김상남 선수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KBO 사무실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영화 '글러브'에서 이 뉴스는 주인공 상남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상남 스스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족 청부살인을 소재로 한 범죄 스릴러 '황해' 속에서 방송 뉴스는 살인 누명을 쓴 주인공이 쫓겨 다니는 과정을 묘사할 때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영 앵커]  
“경찰은 부산항 폭력사건에서 구속된 조선족들의 진술에 따라 조선족 밀항 브로커 면 모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10년 전의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도 YTN이 등장합니다. 무대감독인 여주인공이 연출하는 뮤지컬 무대의 붕괴 소식은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YTN 하란정 앵커]  
“사고로 출연 배우 이수경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대감독 등 공연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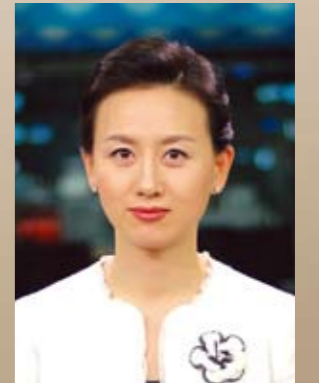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재난 영화 '해운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소식을 '뉴스'로 전하며 시작합니다. 감독은 이런 자연재앙이 먼 나라가 아닌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날 것을 암시하기 위해 허구를 용납하지 않는 '뉴스'라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속 뉴스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방송사의 앵커나 기자가 직접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전문 채널 YTN은 영화 속 리얼리티를 높이는데 적합한 매체라는 이유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화제작으로 꼽히는 '부당거래', '심야의 FM', '헬로우 고스트', '악마를 보았다', '파괴된 사나이' 등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YTN은 '영화 속 방송 뉴스 매체'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개봉될 영화 속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뉴스전문채널 CNN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뉴스전문채널의 실명과 보도진을 영화 속에서 활용함으로써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의 생동감이란가 현실성을 높이는데 유용하다고 영화 제작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체이용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YTN. '영화 등장 횟수'에서도 다른 매체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뉴스 전문 채널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차장대우 문화부

# YTN 해외방송 10년, 새 10년을 준비한다

## 해외방송의 국가대표 - YTN

#1 “따르릉, 따르릉” “청와대인데요, 유럽 순방 예정인 대통령의 숙소엔 YTN이 안 나오는데 시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난해 10월 청와대로부터의 전화.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숙소엔 YTN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다.

#2 2008년 아르헨티나 한글학교 이사장이 YTN을 방문해 동포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패 전달. YTN 해외방송은 한국어 교사 2, 3세들에게 ‘한국어 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해외방송 시작 - 재외동포에 큰 반향

### | YTN 해외방송 연혁 |

- 2001. 4 - YTN WORLD(전 YTN International) 해외방송 시작
- 2002. 4 - 해외동포 시청자 100만명 확보
- 2003. 3 - IS8 ~ IS10으로 전 세계 24시간 실시간 위성방송 개시
- 2004. 3 - YTN WORLD (전 YTN International) 개국
- 2004. 4 - 해외동포 시청자 180만명 확보
- 2011. 1 - 시청자 9,479만명 확보 (해외동포 700만명, 외국인 8,779만명)
- 2011. 4 - YTN 해외방송 10주년, YTN WORLD 출범

YTN이 해외방송을 시작한 것은 10년 전인 2001년 4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포 방송사가 임차한 위성을 이용해서다. 방송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고국 소식에 목말랐던 동포들에게 실시간 한국어 방송은

충격이었고 그 반향은 대단했다.

## YTN 인터내셔널 출범 - 해외방송의 절대강자

YTN 해외방송은 해외 송출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03년 3월부터 재외동포 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위성 3개를 임차해 전 세계로 방송 지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해외방송팀이 신설돼 동포들을 겨냥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해외 리포터 50여명이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는 쌍방향 프로그램은 YTN이 유일하다.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동포들의 한국어 교사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YTN 인터내셔널의 수신 가구는 재외동포 175만 가구, 700만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YTN을 시청하고 있다. 현재 KBS WORLD, 아리랑 TV가 해외 방송을 하고 있으나 YTN이 영향력과 선호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 YTN WORLD로 새 단장 - 새 10년을 준비한다

YTN 인터내셔널은 해외방송 10년을 맞아 오는 4월부터 YTN WORLD로 거듭난다. 새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해외방송팀은 지난해 12월 글로벌뉴스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센터장에 박득송 국장이 부임했고 기존의 해외방송팀 외에 글로벌기획팀이 신설됐다. 글로벌뉴스센터는 YTN이 해외방송의 절대강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해외방송팀은 해외방송 10주년을 맞아 4월 1일 특집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동포들의 고국소식에 대한 요구에 맞춰 ‘YTN WORLD’ 용 프로그램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외

리포터를 확충하고 자체 송출시간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기획팀은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해외방송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4월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DirecTV 외에 미국 최대 SO인 ComCast와 TimeWarner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런칭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YTN 해외방송은 큰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YTN WORLD, 크게 날자!

앞으로 10년 후의 YTN WORLD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YTN 한국어 뉴스가 처음으로 해외로 송출됐을 당시 현재의 위상까지 오르리라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YTN WORLD는 꿈을 끈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동포소식뿐 아니라 세세한 지구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미디어로 성장하는 꿈을...

## 강홍식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 해외방송 10년 축하 메시지 더욱 큰 사랑을 받는 YTN WORLD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해외방송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 YTN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는 ‘뉴스 전문채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YTN은 2001년부터 시작한 해외방송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의 창(窓)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YTN은 3개의 위성을 이용,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방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국소식과 문화에 목말라 있는 전 세계 170여 개국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YTN 해외방송은 모국에 대한 궁금증과 향수를 달래며 ‘소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이버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우리 재단의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YTN과 우리 재단이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해 충실히 그 역할을 넓혀갈 때 21세기 지구촌 한민족 번영의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방송의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외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배석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외방송 10주년을 맞아 국내외 동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는 YTN WORLD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전 세계 한민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남문기입니다.

국내 최고의 뉴스채널인 YTN의 해외 위성방송 10주년과 이번에 YTN International이 새롭게 YTN WORLD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하게 됨을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YTN은 그동안 24시간 뉴스전문채널로서 곳곳에 뻗어 있는 취재망과 네트워크로 국내의 소식뿐 아니라 지구촌의 다양한 뉴스를 미주 교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채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의 모습을 국내에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미주 동포들과 고국과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주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국의 참 모습을 알리고 우리 문화와 얼을 전달하는 뿌리 교육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여 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국땅에서 고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미주 동포들에게 YTN은 고국과 미주를 잇는 뉴스와 정보의 창구로서 어느덧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보다 빠른 뉴스와 정보 전달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YTN WORLD의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정보전달과 전 세계 한민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뉴스전문채널로서 YTN WORLD가 이제는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활약상을 고국에 전달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성공과 회한과 아픔까지도 생생히 고국에 전달하여 국내와 세계의 모든 한민족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슴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크나큰 메신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국내와 세계 한민족을 묶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들에게 각 나라 동포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교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뉴스가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고, 세계의 흐름과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며 세계의 구석구석의 다양한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고 함께 울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민중의 방송, 해외동포들의 동반자요 한민족의 방송으로서 YTN WORLD의 크나큰 활약상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YTN의 해외 위성 방송 10주년과 YTN WORLD로의 재출범을 축하드리며 YTN의 무궁한 발전과 협찬 약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남문기 해외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 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 준 YTN이라는 비옥한 토양

우토로, 조국, 해방팀, 그리고 글로벌코리안!  
 2005년, “내일 당장 강제철거 당할 위기에 처한 우토로 주민들을 지키자”는 일본 시민운동가의 연락을 받고 우토로를 찾아간 것이 고맙고도 반가운 우토로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교토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 51번지!

‘우토로’는 태평양 전쟁말기, 교토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동원됐던 동포들이 해방 후 만든 작은 마을이다. 도쿄에서 교토까지 왕복 2만7천 엔, 한 달 방값의 1/3이라는 거금이었으나, 동포들의 안위를 생각해 눈 꼭 감고 신용카드를 긁어 신칸센 타고 우토로로 고고씽!전철에 택시까지 갈아타고 도착한 우토로 마을은 언제 강제철거가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주민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죽어도 우토로에서 죽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순박한 동포들과 인터뷰를 끝내니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밤을 새며 편집하고 일본 인터넷의 저질 속도와 싸우며 해방팀 웹하드에 기사를 올렸다. 우토로의 절박한 현실이 뉴스로는 처음으로 한국 TV방송을 타고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 후 우토로의 어머니들로부터 ‘일본 깡패들이 겁주러 왔다’ 등의 제보 연락이 오면, 우토로로 내달렸다. 교통비의 압박은 물론 컷지만 도쿄에서 교토까지 470Km를 당일치기로 오가며 글로벌코리안을 통해 우토로의 급박한 상황을 틈틈이 전했다.

## 내가 암이라니! ... 우토로의 딸로 거듭 태어나

‘과연 취재와 보도만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까라고 반성하게 되면서부터 우토로 모금활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식의 자각이 스스로의 목숨까지 구할 줄이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병원에 실려간 덕에,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니 우토로에서 함께 치료하자며 우토로로 끌고 오려는 어머니들의 노력과, 무작정 버티던 나의 황소고집 등 밀고 당기던 과정은 생략하고, 두동~ 2008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절! 일본에게는 패전일! 첫 항암제를 시작으로 우토로에서 투병생활 시작. 어머니들과 함께 밭에 나가 푸성귀를 따고, 고추를 말리는 등 서울에서 자란 탓에 맛볼 수 없었던 아기가자하고 달콤한 시골생활이 이어졌다.

## 첫 항암제 전달도 YTN FM 전화연결!

YTN FM이 2008년 4월 개국하면서 일본 소식을 전하게 됐다. 첫 항암제 투여 전달은 물론, 입원 중에도 어디에서든 YTN FM을 통해 일본 소식을 전했다. 1년 동안 우토로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시사적 감각을 잃지 않은 것은 YTN FM의 주현정PD와 정선영 작가의 공이 크다. 누구보다



친자매처럼 걱정하고 응원해준 김여진 앵커와 조민철 PD, 두수진 PD 그리고 맘에 잘 듣는다는 귀한 상황버섯까지 국제항공편으로 쏘준 사이언스의 박세영 전 PD(예쁜 공주님까지 낱고 벌써 5개월차 들어간다는 자기를 속 빼닮은 토끼같은 딸의 사진을 과다하게 보내기도 했다), 격려의 메일을 보내오신 박성호 전 팀장님, 홍콩의 경옥 언니, 캐나다 영아 언니, 멕시코의 김정 씨를 비롯한 세계 각국 리포터 등 해방팀 여러분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딱 잘라말해

뿌리깊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향,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 그런 거친 현실 속에 재일동포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것, 나에게 역사적 계몽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준 것, 내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해주고 목숨을 살려준 것도 모두 우토로다. 그런 우토로와, 피붙이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준 것은 YTN 해방팀이다. YTN이라는 큰 그릇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 준 셈이다. YTN 해외리포터로 해방팀의 역사를 함께해올 수 있어서 고맙고, 해방팀이 글로벌뉴스센터로 확대돼 YTN WORLD로 출범한다니 그저 뿌듯할 따름이다. 앞으로 YTN WORLD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미디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사유 글로벌코리안 일본 리포터

# 음악이라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행복했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



2011년 1월 22일 한전아트홀에서 열린 두 번째 '희망의 우물 콘서트'가 감사하게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 YTN과 월드비전이 주최한 이 콘서트에서는 우간다에 우물을 파주기 위해 재능을 기부한 31명의 연주자가 참여하였고, 그 결과 3개의 우물을 우간다에 설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던 주민 3,00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2년 전 우연히 한비아님의 서적 '그건 사랑이었네'를 읽게 되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 중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도 안 먹는 흙탕물을 아이들이 마셔서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들만 한 아이가 흙탕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 엎드려 입을 대고 마시는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합성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물이 없어 흙탕물을 마시는데, 나는 얼마나 물을 평평 쓰는지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다가, 재능을 기부해 우물을 파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뜻을 가진 2명의 친구와 함께 첫 번째 '희망의 우물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콘서트 준비를 하면 할수록 현실의 벽은 더더욱 높아 보였다. 어렵게 재능기부를 하는 연주자들 13명을 섭외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동안 티켓판매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티켓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우물 한 개 설치할 기금도 모이지 않을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YTN에서 이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 YTN이 콘서트 홍보, 기업 협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셨고(사실 YTN 홍보영상을 보고 돕고 싶다며 지방에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도 계셨다). 월드비전은 공연장소 대관과 인쇄를 도와주셨다.

드디어 연주 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주자들은 연주 직전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가 가장 초조하기 마련이다. 연주 때 실수를 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까 봐 엄청나게 긴장하고 떨릴 떨기도 한다. 몇 분이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많은 콘서트를 했어도 나는 연주보다 티켓판매가 입술이 마를 정도로 더 걱정된 건 처음이었다.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작 벨이 울리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700석의 객석이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꿈만 같았다. (티켓수익금 3,000만 원으로 스와질란드에 3개의 우물을 파줬다. 한 개의 우물 설치비용이 1,000만 원, 3,000명의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다.)

첫 번째 음악회의 많은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 2011년 1월 22일에 두 번째 '희망의 우물 콘서트'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인 YTN, 월드비전과 함께했다. 두 번째 콘서트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뮤지컬, 영화음악 같은 대중적인 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 웅장하고 멋진 소리를 선보이기 위해 더 많은 관악기 연주자들이 필요했는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동참해 주었다. 우간다에 우물 파러 가는데 본인들이 빠지면 서운하다고 했다. 친구들과 20년 만에 연습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음악이라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 일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

복했다.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했고, 틈나는 대로 학창시절과 본인의 자녀 이야기로 연습실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20년 전 고등학생 시절 함께 연주했던 친구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전문 연주자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연주를 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얼마 전 마이크로 크레딧의 창시자 무하마드 유누수에 대한 책을 읽었다. 유누수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자기 마을에 사는 한 극빈 여성을 돕고 싶어서 사업자금 27달러를 빌려준 것에서 시작했다. 그 작은 일이 그라빈 은행의 첫발이 될 줄은 유누수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요요마처럼 유명한 첼리스트가 아니다. 다만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아리게 아프고 그들에게 깨끗한 물 한잔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평범한 첼리스트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서 6개의 우물 설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고 보니 어느덧 2년 만에 나와 뜻을 같이하는 나눔의 동지들이 30명이나 생겼다.

얼마 전 스와질란드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님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소녀의 감사 편지였는데, 사실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고마웠다. 왜냐하면, 덕분에 나는 나눔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우물 콘서트를 통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의 현실을 알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처럼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에 옮길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마음과 행동들이 모여서 실천에 옮겨질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밝은 빛으로 비추리라 믿는다. 끝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싶은 나의 작은 꿈을 이루게 도와주신 YTN과 월드비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인경 첼리스트





## 제 5회 케이블TV방송대상 <한국전쟁을 말하다> 수상기 남겨진 말들...

한국전쟁 특집을 기획한 것은 2009년 가을이었다. 자매 방송사인 TBS의 이길재 기자가 춘천 한림대에 한국전쟁 관련 미공개 희귀

동영상이 있다는 귀뜸을 해줬다. 동영상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춘천으로 달려갔다. 6mm 테이프에 보관된 한국전 동영상이 수백 개가 넘었다. 몇 개를 골라보는 데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고도 선뜻 제작을 하겠다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200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3년 동안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이념전쟁은 구비마다 사연을 품고 있는 큰 산으로 비쳤다.

하지만 다 구문이었다. 전후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전쟁에 관한 프로그램은 수천 편이 넘을 터였다. 제작을 하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필요했다.

“타이완으로 간 중국군 얘기는 잘 아실 거고, 혹시 화교 정보원들 한 번 취재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군사편찬연구소의 서상문 연구원이 던진 말이다. 자신도 한국전쟁에 참여한 화교 정보원들에 관심이 많은데 취재해 보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화교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솔깃했다. 문제는 이들 화교 정보원들의 소재를 모른다는 점. 서 박사는 최근까지만 해도 자신이 인천에 살던 화교 정보원 한 분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그분이 최근 돌아가셔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숨진 정보원의 이름 석 자만 달랑 가르쳐 줬다.

화교협회 등을 통해 광주에 사는 서울-차이니스 정보원 한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곡종신 씨. 그런데 이 분은 10여 년 전 찾아온 뇌졸중으로 말을 못했다. 인터뷰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화교 정보원과의 인터뷰는 결국 필담으로 진행됐다. 몇 년 생이고 언제 한국으로 건너왔으며 고향이 중국 어디인지 기초적인 사실만 확인하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 여든인 이 정보원의 기억은 흐렸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작전 내용이나 자신이 당한 고문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참전 보상 얘기를 꺼냈다. 결론은 ‘보상 안 해줘도 좋으니 한국 화교들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에 맞서 싸운 점만은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랬다.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은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보였다. 방송과 신문, 책에서 60년 동안 수없이 한국전쟁을 되짚어도 자신이 겪은 전쟁의 깊은 속내를 시원하게 말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다. 이번 <한국전쟁을 말한다>도 마찬가지다. 불과 백여 명의 사람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 만분의 일도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전쟁 경험 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요즘이 마지막인 듯싶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곁에 남아있을 전쟁 세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말한다>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재들로 전쟁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문단 원로들이 겪은 경험담과 여자해병과 학도병, 한국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전한 타이완과 중국군 이야기, 미군과 맥아더의 용병이라며 손가락질 받았던 프랑스 참전군인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 제 42회 한국기자상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수상기

# 천안함 트라우마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돼 간다. 아직도 그 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천안함의 ‘천’자만 나와도 귀를 쫓긋 세우고 관련 기사는 죄다 훑어 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년은 ‘천안함 트라우마’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나로서도 가슴이 불가능하다.

기사로 쓰지 못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해 보려고 생각중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침몰사건은 스스로 불편한 특종으로 규정했다. 국방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유일한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섬광이다. 해병 초병들이 본 ‘섬광’과 ‘천안함 폭발원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해병 초병들이 본 ‘섬광’은 ‘1번 어뢰 파편’과 함께 어뢰에 의한 ‘버블제트’를 보여주는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초병들이 거의 동시에 ‘폭발음’과 ‘섬광’을 보고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위치가 다른 걸까? 초병들이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폭발원점이 잘못 발표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얼마 전엔 모 일간지에 게재된 북한 반잠수정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

다. 북한 반잠수정에 어뢰가 장착돼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반잠수정은 ‘침투용’이지 ‘폭침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북 반잠수정은 ‘폭침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셈이 된다. 그렇다면 반잠수정을 이용한 공격이 정말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당시 ‘새떼 논란’을 다시 떠올려 보자. 주변에 있던 속초함이 새떼를 향해 함포 사격을 가할 때 백령도 해병 기지에서는 100발미만의 별컨포 사격이 가해졌다. 반잠수정 침투▶폭침▶물위를 나는 새떼▶발견▶속초함 사격▶해병대 별컨포▶북 반잠수정 해안 동굴로 귀환이라는...

국방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을 북한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한다. 이렇게 깨우치지 않은 뒷맛을 남기면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특종이라고 스스로 규정했고 일부 침몰원인은 여전히 취재대상으로 남아 있다.

많은 것을 배운 1년이였다. 천안함 사건의 시작을 알렸으니 완

<한국전쟁을 말한다>는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분명히 과분한 일이다.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취재를 같이했던 장아영, 이성모, 최계영 씨는 긴 시간 어려움을 함께 했다. 또 총소리 대포소리를 넣기 위해 고단한 작업을 되풀이 해야만 했던 장석문 감독, 깔끔한 그래픽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나를 자극했던 정지원 차장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은 한층 새로워졌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새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안한 <미디어>의 조광현, 지희종 두 편집감독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흥은표 작가에게는 많은 빛을 졌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함께 들렸다. 여군에 지원했던 이수덕 할머니는 방송이 끝난 뒤 전쟁기념관에서 애지중지 소장하고 있던 군복과 용품들을 모두 인수해 갔다고 했다. 앞으로 간직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데 잘 된 일이라며 고맙다고 했다. 광주시에 살던 서울-차이니스 부대원 곡종신 씨는 방송 20여일 뒤인 지난해 7월 17일 간암으로 숨졌다. 인터뷰 당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했다. 곡 씨는 보상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신청했으나 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정부는 곡 씨가 타이완 국적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야속한 운명, 하늘에서라도 편안하시길 빈다.

### 임수근 차장 제작팀

전무결한 끝맺음도 내가 하라는 얘기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낸 마당에 그게 실용적인 일인지 고민이다. 천안함 사건의 첫 보도는 얼굴도 몰랐던 제보자와의 끈질긴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각종 상을 받았지만 동료들의 노고를 보면 내가 한 수고는 1보외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떨리는 심정으로 1보를 전하던 그 때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기자상 수상 소감에서 “큰 상 무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천안함’과 그 주변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1년 전 그날 차디찬 밤바다에서 원인도 모른 채 스러져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 김문경 차장 정치부







#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 오만. 현지시각 1월 23일 새벽 4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공항에 도착,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삼호해운 공무부장 안장익 씨를 인터뷰 하며 10박 11일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당초 1월 24일 삼호주얼리호가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내 언론의 보도였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고 보니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은 기약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1월 31일 술탄카부스항에 배가 정박할 때까지의 모든 일정은 마치 꿈틀거리는 생물과도 같아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이 지연된다면 살랄라로 가야했다. 순회특파원인 이만수, 김종완 기자는 무스카트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살랄라로 향했다. 술탄카부스병원에 입원중인 석해균 선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살랄라는 무스카트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으로 차로는 10시간, 비행기로 두 시간 동안 가야 했다.

순회특파원은 술탄카부스병원의 내부까지 취재를 하며 석 선장의 회복 정도에 초점을 맞춰 리포트를 제작했다. 23일 병원 내부를 취재해 송출을 한 후로는 더 이상 병원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무리하게 병원 내부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나 동아일보 기자가 병원 측 신고로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했다. 무스카트에 남은 나는 현지인 가이드 사이드 씨와 동행하며 취재를 했다.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항 외경과 시내스케치. 24일 특전여단장 오만 입국.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부상당한 특전사요원들이 치료를 받던 로얄병원 내외부를

영상 취재했다. 취재과정에서 사이드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관료로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맥이 꽤 넓었다. 술탄카부스항의 부감을 촬영하기 위해서 통제된 곳을 오를 때나, 로얄병원의 내부를 취재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사이드 씨의 인맥은 큰 도움이 됐다.

## 미스터 김 펠 다운

25일 오후 두시, 사이드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무척 흥분된 상태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서 겨우 알아들은 문장은 '미스터 김 펠 다운'. 이만수 기자와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하던 중에 듣게 된 비보였다. 사이드 씨에게 김종완 기자의 상태를 물었으나 흥분한 사이드 씨의 영어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김종완 기자가 전화를 건네받았다. 김종완 기자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선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선배는 위성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술탄카부스항으로 갔고, 설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진 듯하다는 설명을 했다. 내 말을 다 듣고 난 김종완 기자는 똑같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긴장의 끈은 다시 조여졌다. 네 번의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 다섯 번째 질문에서 김종완 기자는 다른 것을 물어왔다. 모든 일을 접고 이만수 기자와 함께 하울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는 불길한 상상만 가득했다. 다행히 응급실의 김종완 기자는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뇌나 척추와 같은 중요부위에 부상이 없었다는 점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

만수 기자가 병원에 남아 김종완 기자의 입원수속과 검진을 돕는 동안 나는 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사고 현장과 오만의 경찰서를 다녀야 했다.

다시 생각해도 기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김종완 기자의 사고. 현지 의사나 가이드 모두 한 입으로 했던 말도 '미라클'. 어떤 취재현장에서건 사고는 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 위험지역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했다. 지상과 방송국의 경우 위험지역에 취재를 갈 경우 위험지역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 김종완 기자의 사고로 인해 해외출장매뉴얼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 사후약방문의 아쉬움.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진다니 이것 또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두 번의 살랄라 마와리

26일 오전 11시, 석해균 선장의 가족과 한국 의료진이 무스카트에서 살랄라 술탄카부스병원으로 출발했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혼자서 석 선장 가족을 동행취재 했다. 이만수 기자가 미리 항공권을 예약한 덕분에 가능했던 취재였다. 무스카트에 남은 이만수 기자는 김종완 기사를 돌보는 일과 취재를 병행해야만 했다. 이 기자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스케치를 했고, 동행한 가이드는 이만수 기자의 스텐드업을 잡았다. 취재한 영상과 녹취는 각자가 알아서 보내야 하는 상황.

두 번째 살랄라로 간 날은 석해균 선장의 귀환이 결정된 28일,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컵을 취재하던 출장팀이 무스카트로 합류한 뒤라 이만수 기자와 같이 살랄라로 갔다. 술탄카부스병원의 외교부 직원들은 근접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살랄라 현지에 있던 각 언론사 기자들은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새벽 3시, 촬영 위치를 정하고 석선장의 이송을 기다리다가 병원 보안요원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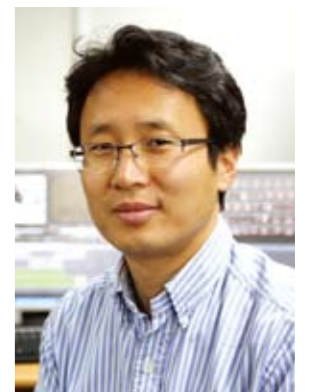
취재진의 철수를 강요하는 보안요원들 덕분에 기자들은 각자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몰래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차량 내부에서 하던 취재가 발각되면 차를 돌려 병원 밖으로 나와야 했다. 석해균 선장의 이송을 팔로우하고 각자의 원본을 웹하드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고 나서야 살랄라 일정은 마무리 됐다.

## 입항, 귀국

1월 30일 밤 10시, 한국대사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만정부가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을 허가했고, 31일 오전에 최영함과 함께 삼호주얼리호가 입항을 하리라는 내용이였다. 31일 이른 아침 술탄 카부스항으로 향했다. 배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파악해 둔 네 곳의 촬영포인트 중 항구에서 가장 먼 네 번째 포인트로 갔다. 멀리서라도 배가 보이면 촬영해서 일보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공해상에 있던 최영함과 삼호주얼리호의 동선이 예상과 달라 급히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도하팀이 대기하며 입항스케치와 송출을 준비 중이었다.

삼호주얼리호가 천천히 입항했고, 뒤이어 최영함이 입항을 했다. 일보를 송출하고 난 후 부두로 가서 취재를 이어갔다. 총탄의 흔적이 즐비한 배를 촬영하다가 선원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괜찮으시냐는 질문을 던지자 괜찮을 리가 있겠냐는 반문을 해오셨다. 괜찮을 이유 없는 선원들과 탄흔이 가득한 배. 교전 당시의 위급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만의 맑은 대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코랄해변의 쪽빛 바다. 휴양으로 온다면 참 좋을 도시 무스카트. 출장기간 동안 평균 수면시간 4시간. 김종완 기자의 사고.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 이만수 기자는 김종완 기사를 돌보기 위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무스카트에 남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먼저 귀국하는 나는 미안하기만 했다.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으로 일정은 마무리 됐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은 글을 쓰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래도 김종완 기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애써준 사이드 씨를 만난 일. 바쁜 와중에도 김종완 기자의 상태를 살피려 와주신 최중현 대사와 외교부 직원들에게 들었던 감사한 마음. 김종완 기자의 무사 귀환. 돌이켜 보면 이번 출장은 다행한 일들만 있어서 감사한 출장이었다.



강영관 영상취재부

# 난생 처음 1미터가 넘는 눈을 보았다

‘따르릉 따르릉’

14일 오전 11시 10분,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단신을 쓰고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평상시처럼 출입처 전화라고 생각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분은 다름 아닌 김동우 청주 지국장님.

‘속으로 무슨 일이지?, 무슨 일 발생한 거 없는데’라며 갖가지 생각을 속으로 하며 전화를 받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청전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짐을 싸서 강릉으로 가서 폭설 취재를 지원하라는 것. ‘청주에서 강릉까지 가라고?’ 지도를 보면 청주에서 강릉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게 보이지만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4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더해 1미터가 넘는 폭설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 전화를 받은 저는 속으로 갑갑했지만,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꾸린 저는 카메라 기자 원인식 선배와 운전담당 환경진 사원과 함께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동해로 출발했습니다. 강릉이 아닌 동해로 먼저 가게 된 이유는 동해시에 있는 학교 몇 개가 폭설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가 취소됐다고 해 그 내용을 취재하라는 김승환 강릉지국장님의 취재 지시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동해로 출발한 지 2시간 반이 지나고 어느덧 저희가 탄 차량은 대관령을 지나게 됐습니다. 대관령 터널을 지나자마자 세상은 판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해로 가던 길 주변에도 눈이 쌓여 있었지만, 대관령 터널을 지나자마자 도로가에 쌓인 눈은 그냥 봐도 몇 배나 돼 보였습니다.

‘눈이 진짜로 많이 오긴 왔구나’란 생각을 한 저희 취재팀은 동해시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1시에 청주에서 출발해 4시간이 지난 5시가 조금 넘어서야 동해시 나들목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나들목을 지나던 우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도로가에 쌓인 눈이 언뜻 보기에 1미터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휴교령이 떨어진 학교에 갔을 때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은 말 그대로 하얀 설원으로 변했고, 운동장에 주차된 25인승 등교차량 버스는 눈이 창문 높이까지 쌓여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또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윗부분만 눈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놓은 채 모든 부분이 눈에 덮혀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온 마이크를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는데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마다 허리까지 눈에 빠지는 것이 매년 10센티미터 안팎의 적설량만 보던 저로서는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폭설에 강원동 영동지역에는 적게는 1미터에서 많게는 1미터 40센티미터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가릴 것 없이 영동지역에 말 그대로 눈 폭탄으로 도심이 아예 큰 설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월요일에 출장을 간 우리는 강원도 강릉에서 금요일까지 4박 5일의 기간을 있었는데 닷새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온통 세상을 덮어버린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눈 때문에 차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산에서는 야생동물이 눈에 갇히는 사례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삼척 재래시장 비 가림 시설 붕괴사고입니다. 이번 눈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어서 눈의 무게가 3~4배가량 무겁다 보니 비 가림 시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설마 시장 지붕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동지역은 원래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비 가림 시설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든 취재 일정을 포기하고 바로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파문히고 일부는 숨졌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상황은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은 현장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다행히 이번 가림막 시설 붕괴로 숨진 사람은 없었고, 눈에 묻혔던 사람도 모두 구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아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폭설로 시설 지붕과 축사가 붕괴하고 학교 교단까지 무너지는 등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해 강릉에 있는 기간 내내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날까 가슴 졸이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고 1미터 40센티미터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강원도 영동지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도심 기능을 되찾아갔습니다. 영동지역에 도착한 첫날인 월요일에는 도심 전체가 눈에 덮여 있었지만, 제설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로 등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 눈이 많이 오던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설 작업의 노하우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이번 폭설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비 등을 지원해 다른 때보다 더 빠르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운 눈을 마땅히 버릴 곳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는 도심 곳곳에서 모은 눈을 하천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천에 눈을 쌓아 놓으면 나중에 눈이 녹아도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눈을 버리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던 것입니다. 하천으로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눈을 쏟아 붓는 덤프트럭으로 하천에는 거대한 눈의 평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광경은 아마 또다시 1미터가 넘는 폭설이 도심이 내리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 겁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은 14일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 내린 눈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1미터가 넘는 눈 폭탄. 그래서 폭설 취재를 위해 강릉지국은 물론 춘천지국, 서울 그리고 청주지국에서 지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취재팀만 모두 6팀. 아마 폭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취재팀이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폭설 취재팀 모두가 강릉지국장인 김승환 지국장님을 필두로 각자 맡은 업무를 착착 해 나가면서 폭설 취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폭설 취재를 하면서 난생 처음 보는 눈 폭탄이어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는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생 처음 1미터가 넘는 눈을 보게 되는 경험을 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릉에서 폭설 취재로 고생한 모든 선후배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청주지국

왼쪽부터 김동철 차장, 김승환 강릉지국장, 송세혁, 원인식, 환경진, 앞에 이성우



#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지난해 12월, 우리는 '바람'을 만나러 떠났다. 동시대 보다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들을 만나러, 또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하다는 그 변화를 보고 느끼고 담으러 떠났다. 한 달 동안 온몸으로 느낀 바람은 아주 차가웠고 또한 아주 신선했다.

## 바람 취재단... 혹독한 신고식

첫 무대 독일에서 담으려던 건 고갈 없는 자연의 선물, 신재생 에너지 열풍이었다. 속소가 있던 베를린에서 차로 3시간 남짓 달려, 라이프치히 '에네르기 파크'에 가던 날.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햇볕은 쨍쨍 태양광 패널은 반짝'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위에는 한 뼉 넘는 눈이 쌓여있었다. 불이 켜져라 불어대는 바람은 아직 얼지 않은 눈밭을 쓸어 눈보라를 만들었다. 인근 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축구장 2백 개 넓이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라는 이 태양광 단지에서, 우리는 패널에 매달린 고드름이 영상에 담겼다.

'오금이 저리도록 바람이 부니 풍력단지는 그림이 되겠지' 싶었다. 독일의 시베리아라고 불린다는 드레스덴 크레트비츠 지역. 산에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우리네 광산과는 달리, 평지 표면을 걷어 내면 갈탄이 나오는 동독시절 대표적인 광산 지역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 위에 오염 없는 에너지원인 풍력단지가 세워진 그 역설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지나쳐가는 갈탄 광산 어디에도 풍력발전기는 없었다. 70m짜리 거구가 안보일리는 없을 터였다. 지척에 가야 발전기가 도는 구나

싶을 정도의 지독한 안개가 문제였다. 결국 다음날 관리인 할아버지의 주말을 지켜주지 못했다. 할아버지 지.못.미.

## 바람? 이미 일상인 것을.

유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추위도 익숙해질 무렵.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가는 좁디좁은 비행기 안에 6시간을 갇혀있었다. 아무리 치위도 활주로 위로 쏟아지는 눈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옆자리 프랑스인 커플은 거짓말 안보태고 30초에 한 번씩 키스를 해댔다. 파리에 도착했지만 갈아타야했던 뉴욕행 비행기는 진작에 떠난 뒤였다. 겨우겨우 다른 편을 잡아탔지만 결국 사단이 났다. 짐 가방은 모두 뉴욕에 도착했는데, 귀신같이 장비 가방만 비행기를 못 탔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작한 미국 일정. 고층건물 사이로 밀려드는 뉴욕의 칼바람. 하지만 우리도 바람을 견디는 깡에 굳은살이 배긴 터였다. 록펠러 센터 침탐에 걸린 해와, 타임스퀘어를 지나는 차량 미속을 돌릴 때는 여전히 뜨거운 커피가 필요하긴 했지만.

이번엔 영어가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서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당신과 인터뷰 하고 싶은지를 설명한 끝에 몇몇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 마주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답은 '스마트 열풍'이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SNS로 마케팅 하는 햄버거

가게에 대해 '스마트 기기 도입 이후 사회에 나타난 논리적인 수순'이라며 간단명료한 분석을 내놨다. 또 태블릿 PC를 구경하던 한 청년은 브랜드 별로 제품의 장단점을 줄줄이 꿰며 기자라면 어떤 제품이 좋겠냐며 조언을 했다. 서점에서는 안경을 고쳐 쓰며 전자책 리더기를 고르는 파파 할머니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에겐 이미 바람이 아닌 일상이었다.

## 바람, 이제 어디로 불는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수도를 꿈꾼다. 전기차를 사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만 2천 달러 넘는 지원금을 준다. 도시 곳곳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최고속도 시속 200km,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멋쟁이 스포츠카는 실리콘밸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인구 4만의 링컨 시티에는 골프카트 같은 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마다 전용 차선까지 만들었다.

독일 다테스하임 시 앞산엔 풍력발전기 32대가 돌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9곳 있다. 여름에는 유채를 재배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만든 깨끗한 전기는 필요한 양의 배가 넘는다. 마을 사람들은 전기료를 한 폰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남은 전기를 팔아 돈을 번다. 더불어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화석연료는 이렇게 매일매일 줄어든다.

9백 쪽이 넘는 미국 중학교 수학교과서는 아이패드 속으로 들어갔다. 동영상 강의도,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 그려지는 그래프도 손가락 하나로 이용한다. 수만 권이 넘는 대학도서관의 장서도 집에 앉아 볼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3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다운로드 횟수 백억 건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삼성SDI와 LG화학 등 최고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국내업체다. 또 지금 제주도에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의 아성을 무너뜨릴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바람은 어디로 불게 될까?

## 덧붙여

입사 만 3년도 되지 않아 특집 취재를 다녀왔다. 해외 취재를 떠나기 전, 회사가 너를 너무 과대평가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특집에서 '취재'를 하기에 망둥이었다. 경황 없는 해외 일정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임수근 선배, 소렌토 트렁크에 앉아, 안전벨트는 카메라에 묶어 주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빨간 스포츠카의 멋진 곡선을 담으셨던 박정호 선배, 한 달 동안 밤이면 밤마다 파일 정리 하느라 노트북 앞에서 꼬박꼬박 졸던 시철우 선배.

저 복 받은 거죠? 고맙습니다. 선배들! 이제 다 진정오빠 같아요. 하하하하

## 연혜원 사회부



독일 에센모터쇼



네덜란드 풍차



독일 전기차 충전소 표시판



독일 클레트비츠지역 풍력단지



뉴욕 자유의여신상 스케치 중인 박정호 기자



독일 전기차 충전소



얼어버린 운하, 네덜란드 호로닝엔 마을



왼쪽부터 박정호, 연혜원, 임수근, 시철우

# 공.감.

## 공포의 인사, 감출 수 없는 마음

“장모님! 처가 외박했습니다.”

처갓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뚝뚝한 부산 억양으로 그러나 아주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신랑이 불쑥 내뱉은 첫마디였다. 오랜만에 마주한 막내 사위의 느닷없는 말에 엄마는 당황해 눈이 뚱그래지셨다. 누가 봐도 결혼 2년차 아내의 비행에 분노한 남편의 폭발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순간 엄마와 나 사이 정적이 흘렀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니 하도 어이없어 웃음부터 나왔다. 뭘지는 몰라도 내가 웃으니 그제야 엄마 역시 굳어진 근육을 풀고 얼굴에 따라 웃으셨다.

“아니 그게, 집에 못 들어온 건 사실인데 외박이 아니라 야근이죠. 야근!”

“어쨌든 외박은 외박이예요, 그러다 수치 오르면 우짤라꼬!” 유치원생 고자질 같은 신랑의 첫인사 때문에 부부가 어린애들처럼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더 크게 웃으셨다.

## 공짜로 얻어지는 감동은 없다.

나도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만에 타이틀을 만들어야 했고 프로그램 틀을 잡아 음악도 넣고 그래픽과 디자인을 구성해야 했다.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 그래도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눈앞에 구현해 내는 그래픽 팀 진호 씨에게 고맙고 미안해 작가와 나는 안절부절이었다. 섭외는 또 어찌나 어렵던지... 장소 사용료도 전혀 없는 우리에게 출연료는 언제 보내 주냐고 뒤늦게 물어보는 매니저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겨우 섭외를 확정하고 현장에 나가 인터뷰를 한 뒤 편집을 하고 종편에 들어가려면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스머프 마냥 타이틀에 다닥다닥 민망하게 나오는 애숙이 다섯 마리 중 두 마리만 불러내 일시키면 좋겠다는 엉뚱한 농담이 절로 나왔다. 당장 내일이 방송인데... ‘이것만 하면 끝나겠지...’ 하면서 일하다 보니 자정이 지났고 편집기가 덜컥 서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아침이 됐다. 광고에 나오는 말처럼 ‘조금 더’의 차이를 알기에 연말연시 약속을 반납하고 잠을 쪼개가며 퍼즐 맞추듯 프로그램 조각을 하나하나 완성해준 고마운 손길들... 나는 그들에게 감동했다.

## 공(空)간, 감(感)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수습 앵커 시절, 6개월 동안 매일 야근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시작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했다. 처음만 고생하면 나아질 거라 위로하면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맙고 소중했다.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고 끔찍하다.’

‘이 험한 세상 내 아이들이 아니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걱정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소식들... 그 안에 치이고 놀려 뉴스 보기 겁나는 세상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 당신이 있어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말을 서로에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뉴스를 진행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다.

완벽해서 아름다운 건 아니리라. 늘 성공만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도 아니리라. 대부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대중에게 특정 이미지가 각인됐지만,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면 완벽할 것 같은 그에게 나와 같은 상처가 보이고 패자의 씩씩함을 모를 것 같은 당당함 안엔 실패를 이겨낸 마음의 근육이 자라있다. 날카로운 독설 뒤에 수줍은 미소를 감추고 있고 바람처럼 가벼울 것 같은 단어 안에 자유로운 순수의 영혼이 상대를 때로 시킨다. 오해와 분노로 얼룩지기 쉬운 오늘과 내일이 아주 작은 ‘귀 기울임’으로 평탄해질 수 있다면 상대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두는 일,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처음 만나는 사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차고 까만 카메라 앞에 앉아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진심을 담아 오고 싶다는 건 큰 욕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나의 진심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먼저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에 대한 편견과 섭입견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 마음의 그릇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낼 넉넉한 공간을 만드는 연습.

## 공놀이도 하고 감도 따 먹고...’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랄랄랄라 ~’

어릴 적 들었던 만화 주제가 가사처럼 하루를 그렇게 열고 싶은 아이 같은 열망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간절해진다.

‘오늘은 또 무슨 사건 사고가 기다릴까’

마음 풀이며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는 이유는 이 공간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나의 일터가 함께 모여 즐겁게 공놀이도 하고 그러다 지치면 잘 익은 감도 따먹는 운동장이고 들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그리고 꿈꿔본다.

‘아이 줄려’를 연발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화면을 담아내는 우리의 호프 성 사장님 (성도현 씨의 애칭), 구수한 사투리로 일을 척척 해내는 든든한 구영란 PD, 아담한 체구에 무엇을 그리 많이 채워놓았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감 가는 글귀들을 보내오는 이희종 작가, 이제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종편실 나영 씨와 김 감독님, 거친 모시 위에 고운 천연 물감을 들이듯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주는 음악실 장 감독님과 미연 씨, 나보다 더 내 몸을 걱정해 주는 선후배들... 그들과 함께 가슴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만드는 행복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즐거운 놀이터 같은 신나는 회사를 ...

(경쾌한 웃음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비타민 같은 여자 상미... 사람의 차림새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촬영과 편집에 몰입하며 프로그램의 뼈대를 세운 윤광현 PD, 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애숙 차장대우 제작2팀

| 방송일 | 금 12:30, 20:30, 토 14:30

| 제작진 | 진행 정애숙, 작가 이희종, 촬영 성도현, PD 구영란





# 노벨상 꿈나무를 찾아라!

YTN 사이언스의 최장수 프로그램 보물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창의력 성장을 위해 매주 밤에 탐나도록 뛰어 다니고 있는 창의인재 프로젝트 팀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과학 관련 대회나 창의력 캠프,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밖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고민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제작진. (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학교 밖 소식이 아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자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수업, 시험, 수업, 시험 외엔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었다. 이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 옛날 공부와 답을 쌓게 되었던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일부 그렇다는 얘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씩씩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작진의 귀에 희소식 한 가지가 들려 온 것! 바로 과학중점학교 소식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는 이공계 과목에 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수학·과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건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 발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몇몇 고등학교들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해 이공계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물섬> 제작진은 전국의 과학중점학교를 찾아가 수업 방식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12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15개 지역, 총 19개교를 돌아본 결과 과학중점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교과교실제의 도입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마다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전자칠판이나 컴퓨터 기반 학습인 MBL, e북, 가상실험 프로그램 등 교육용 장비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미래 과학 기술자나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주 두 지역 이상을 돌아야 하는 빡빡한 일정, 돌아오자마자 주말도 반납하고 해야 하는 편집, 어떤 날은 제주 포함 이틀에 세 개 지역을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약 3개월 동안 다니고 나니 차바퀴가 다 닳아 없어졌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여러 학교를 다니다 보니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일 보다는 좋았던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한 학교가 있다. 전남 여수의 고등학교 촬영이 있던 날, 서울에서 출발해 전주 촬영을 마치고 다시 여수로 이동한 터라 제작진은 극도의 피로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런데 여수고등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피곤함이 한방에 날아가게 됐는데, 바로 교문 위에 걸려 있는 [환영! YTN 사이언스TV 보물섬]이라는 현수막 때문이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힘이 절로 불끈불끈 솟았던 기억이 있다. 작은 환영 인사 하나였지만, 방송인으로서 뿌듯함까지 느끼게 해 준 여수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부는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곳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달달 외운 과학 원리를 시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체험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과학중점학교의 교육,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이 꾸준히 높아진다면 조만간 과학 관련 노벨상 수상자도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과학 교육에 대한 노력이 눈부신 성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열정이 불타오르길 바라본다.

박채운 사이언스TV  
 보물섬 작가



## <보물섬>이 안겨 준 즐거움

YTN 사이언스 <보물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과학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촬영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주제를 선택하고 학생들과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여러 과학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수학 관련 비교과 체험 활동, 다양한 과학 실험 및 과학중점반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재 이공계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 소양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전통가옥과 현대식 시멘트 건물의 냉·난방을 비교하는 실험 주제를 정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MBL세트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소재를 찾아 실험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도가 높았고, 실험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고, 그 결과 그래프를 조작, 자료 해석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과학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YTN 사이언스 <보물섬>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교사인 저와 진주여고 학생들이 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박혜현 진주여고 교사>

**| 방송일 |** <사이언스TV> 화요일 11:00, 17:00, 24:00  
 <YTN> 일요일 19:30

**| 제작진 |** 진행 손영주, 리포터 인윤정, PD 지정윤, 한문규, AD 한성구, 작가 진보라, 박채운, 이지혜

# 연예 Talk Talk? 연예 특특!!

## 라디오에 연예정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늘 TV에서만 보는 것으로만 생각해왔지, 라디오를 통해서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보도전문채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YTN 라디오에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연 반응이 좋을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YTN 연예특특!>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TV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화려한 출연진들과 자료 화면으로 채워지지만, 라디오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도 저희 제작진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개편을 앞두고 거의 매일 머리를 맞대고 어떤 코너를 만들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연예 정보는 흘러가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깨고 청취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실태와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예인들을 게스트로 초청해 그들만이 아는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요즈음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싫증을 느끼는 청취자들을 위해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예인을 초대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 최강 고정 게스트를 섭외해라!

물론 PD, 작가, MC...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요일별 고정 게스트입니다. 각 코너별 특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사람, 라디오 방송 감각이 있는 사람, MC와의 호흡이 잘 맞는 사람...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중영된 문화프로그램인 <YTN매거진>에서 1년여 동안 호흡을 맞추고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게스트를 위주로 섭외했고, 연예 프로그램의 특성상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연예계 취재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이미 연예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인 박찬호, 추

신수, 박지성 선수를 찬호, 신수, 지성이...라고 친근하게 불러 늘 우리 제작진의 부러움을 사는 스포츠계의 마당발 일요신문 이영미 기자, 이 영화는 재미 있다, 또는 이 영화는 재미 없다! 아주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시크하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최강 입담의 소유자 YTN 기자 출신의 최광희 영화저널리스트, 그리고 연극·뮤지컬·공연 전문 잡지인 씬플레이빌의 김일송 편집장, 팝 전문 음악 프로그램 DJ



인 팝칼럼니스트 박현준씨, 연예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일간스포츠 정지원 기자와 국민일보 이선희 기자, 멀리 LA에서 헐리우드의 연예계 소식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소현 리포터, 연예, 문화 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음,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오느라 늘 고생하는 이가영 리포터, 최희선 리포터까지.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각각의 코너들을 알차게, 짹짹 채워주고 계십니다.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분들이죠. 프로그램 MC인 저는 이 분들 덕분에 늘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 즐거운 방송, 화기에애한 팀 분위기!

제가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우리 팀원들입니다. (팀이라고 해봐야, 박지호 PD, 허향아 작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만.) 담당 PD인 박지호 선배와는 문화정보프로그램인 <YTN 매거진> 때부터 8개월여를 이미 함께 일해온 터라 호흡이 잘 맞았고, <YTN 연예특특!>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우리 식구로 합류한 허향아 작가는 MBC 라디오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경험 덕에 금방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늘 MC를 배려해주는 PD와 매일매일 저를 감탄하게 만드는 오프닝

멘트와 인터뷰 질문지를 써주는 작가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기분입니다. ^^;; 이렇게 호흡도 잘 맞고 늘 화기에애한 팀 분위기는 프로그램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서 보기 좋다고 말하는 게스트들도 많고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특 초대석>에 출연할 연예인들을 섭외하느라 수 십 수 백통의 전화를 돌리고 거절 당하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섭외가 잘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프로그램에 더 좋은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의 PD와 작가 두 분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고...그리고...사...사랑합니다...하하. ^^\*

## 이제 출발점에 선 우리.

<YTN 연예특특!> 프로그램이 생긴 지 겨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연예인들은 정말 빵빵(?)합니다. 가수 김장훈, 박기영, 캔, 팀, 마이티 마우스, 김연우, 조문근, 이상은, 영화감독 심형래, 배우 신이, 변우민, 개그맨 김정진, 이윤석, 연예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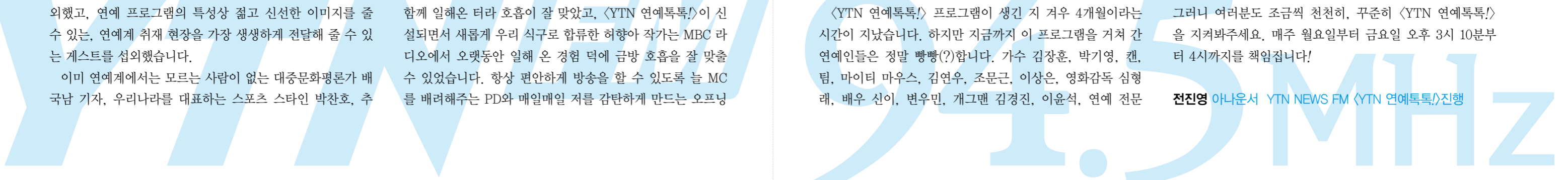
**| 방송일 |**  
월~금 15:10~16:00

**| 제작진 |**  
진행 전진영, PD 박지호,  
작가 허향아

리포터 김생민 등등. 지금까지 초대된 연예인들의 공통된 반응을 들어보면, '라디오라는 매체는 TV와는 다르게 속 깊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두런두런 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라디오의 매력이자 장점 아닐까요? <YTN 연예특특!>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걸어 나아갈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때로는 깔깔대며 웃을 수 있을 만큼 즐겁고 재미있게, 때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청취자들이 YTN 라디오 하면 <YTN 연예특특!>을 떠올리게 되는 그날까지, YTN 라디오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 그 날까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YTN 연예특특!>을 지켜주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를 책임집니다!

전진영 아나운서 YTN NEWS FM <YTN 연예특특!>진행





# 언론사 최초 백만 다운로드 돌파!

지난해 스마트폰 열기가 대단했죠. 올해도 그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YTN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갤럭시S,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에 사용되는 앱을 제작하느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 전 오픈한 Y-report 앱까지... 일단 1단계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우리 어플 얼마나 다운로드 했어?’

‘우리 어플 얼마나 다운로드 했어?’ YTN 뉴스 어플 출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YTN 어플은 현재 백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중복 다운로드를 제외한 순수 다운로드 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백만 다운로드 돌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를 모두 집계한 수치인데요, 대부분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YTN 어플의 인기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을 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 속보가 나온 뒤 어플에서 생방송 접속은 물론 기사 페이지 열기도 쉽지 않았습니. 그만큼 사용자가 폭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사태 때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린 것 같습니다. YTN 웹사이트 역시 방문자가 폭주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팀이 네트워크 관리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사용자 폭주 사태(?)’는 YTN 뉴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실시간뉴스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출근시간, 점심시간,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 폰 사용이 늘면서 웹사이트와는 다른 이용자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스마트폰은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12시부터 오후 1시, 저녁 10시부터 새벽1시대에 트래픽이 증가합니다. 새벽부터 활동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분들에게도 YTN 뉴스 어플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YTN의 실시간 뉴스 콘텐츠가 모바일 디바이스 특성에 맞게 이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웹사이트는 오전 8시에 트래픽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쯤 정점을 찍고 오후 6시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유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트래픽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띠니다.

스마트폰과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겹쳐서 보면 웹사이트의 취약시간대를 스마트폰이 보완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새벽 출근길에,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YTN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YTN 뉴스 어플이 사용자들의 일상 생활에 성큼 다가갔다는 게 느껴집니다.

## ‘사용자들과 함께 하는 뉴스, Y-report’

‘Y-report’가 지난달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뉴스 참여를 쉽게 하도록 제작한 제보 시스템입니다.

‘Y-report’에는 기존 제보와 달리 공개제보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제보는 취재 기자가 기사화하지 않으면 뉴스가 될 수 없었지만 공개제보에 올라온 사용자 콘텐츠는 기사화되지 않더라도 자체 승인 과정을 거쳐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만큼 뉴스 참여의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건사고 제보 뿐 아니라 날씨와 교통상황, 나도 한마디, 진기 명기, 칭찬합시다 코너를 배치했습니다.

‘Y-report’는 YTN 본사와 디지털YTN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어플 기획단계에서는 미디어전략실과 수차례 기획회의를 거쳤고 어플 개발 이후에 운영은 디지털 뉴스팀에서 맡아 주시고 계십니다. 본사와 자회사가 기획-개발-운영에 모두 참여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보 콘텐츠가 뉴스에 활용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마트폰 돈벌이는 되나?’ 수익모델을 찾아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올 연말이면 1,6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6%, 2,5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디지털YTN은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나 포털 사이트를 배경으로 하는 광고대행사들이 스마트폰 광고 시장에서 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수익모델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뉴스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스마트폰 광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장 적절한 YTN만의 수익모델을 찾을 것입니다.

그동안 YTN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디지털YTN은 올해를 스마트폰을 통한 매출 증대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본승 디지털YTN  
매체운영팀장



# YTN, 시청자 제보 통합서비스 ‘Yreport’



‘Yreport’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을 웹과 스마트폰을 통해 YTN 홈페이지에 올려 함께 공유하고 방송에도 활용하는 본격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다.

‘Yreport’에 접속하면 사건사고 제보뿐 아니라 날씨와 교통상황, 뉴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나도 한마디, 진기명기, 칭찬합시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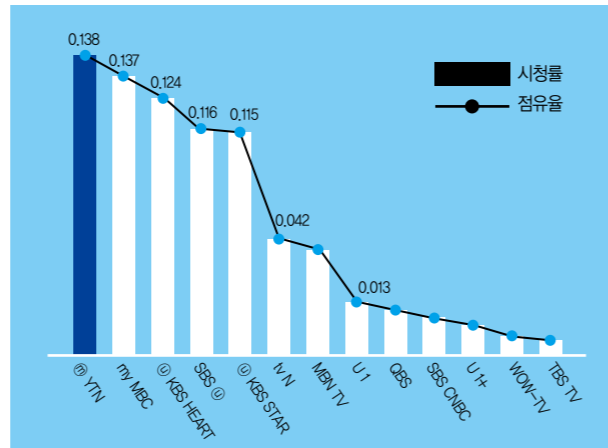
또, 다른 시청자가 올린 콘텐츠에 의견 댓글을 달거나 클릭 한 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를 통해 친구나 팔로워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공개 제보를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YTN 취재진에게만 공개돼 익명성이 보장된다.

YTN은 시청자들이 올린 동영상과 사진을 방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동이 왕성한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Yreport’서비스는 YTN 홈페이지(www.ytn.co.kr)와 아이폰 YT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출퇴근시간을 노려라!

## 월 평균 시청률 첫 1위

2008년 8월 지상파DMB 시청률 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월 평균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일일 평균 시청률에서는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월 평균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미디어미래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YTN의 보도가 공정성 등 여러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KISDI에서 실시한 '국내 시사정보미디어의 이용점유율'을 통한 미디어 이용자다양성 측정 연구에서도 YTN이 채널 이용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일련의 결과들이 @YTN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DMB의 시청률 조사 방법

DMB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06년 월드컵 중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WBC(World Baseball Classic)등 규모가 큰 국제대회 등을 생중계하면서 지상파DMB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캐나다 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 장면이 DMB로 실시간 생중계 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DMB는 4,0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어 현대인에 있어 꼭 필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처럼 DMB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매체 이용행태 및 재원과 관련이 있는 광고 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지상파DMB 시청률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상파DMB 시청률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 모델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난항을 겪었다. 이를 TNmS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지금의 DMB 시청률 조사방법을 만들게 되었다. 지상파DMB 시청률 조사는 기존의 고정형 TV 시청률 조사방법인 피플미터나 일기식 시청률 조사방법과 약간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 시청률 조사를 위해서는 통신망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패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시청률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은 차량형 이용자 300명과 휴대전화 이용자 300명으로 구성했다.

## @YTN 시청률 결과 분석

DMB VIDEO 채널은 플랫폼사업자 6개사를 비롯해 임대채널

##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시청률 측정 방법



7개 등 모두 13개의 채널이 방송되고 있다. DMB는 이동형 매체로서 장점이 부각되면서 DMB로 진출하고자 하는 채널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채널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2008년 8월 DMB 시청률 조사를 실시한 이후 DMB 이용자는 지상파 채널인 myMBC와 KBS HEART, SBS@의 채널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YTN은 myMBC를 제외한 지상파채널과 비슷한 2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상파채널과 함께 방송4사의 위치에 올랐다. YTN은 지상파채널과 직접 시청률 비교를 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DMB 채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비교해 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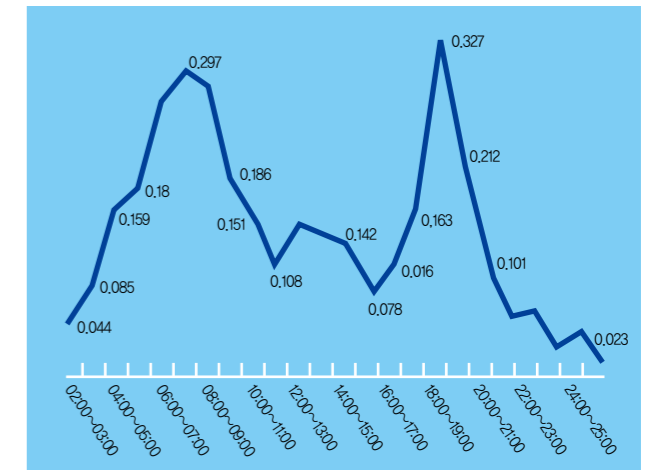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YTN의 시청률이 상승곡선으로 추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4월과 11월은 지상파채널과 비교해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YTN의 시청률 또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은 뉴스가 많았던 시기다.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뉴스특보가 편성되었으며, 기록적인 한파와 구제역 창궐로 뉴스 소구력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YTN은 지난 1월 3일 출근 시간엔 광고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퇴근 시간엔 '이브닝 뉴스' 신설하는 등 뉴스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이 DMB에 있어 중요한 주시청시간대라 할 수 있는 아침 07시 ~ 09시와 퇴근 시간인 17시 ~ 19시에 많은 변화가 있어 DMB의 시청률 견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케이블TV인 YTN은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이 낮 시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YTN은 출퇴근 시간이 낮 시간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YTN과 @YTN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YTN의 이용자 특성은 YTN의 이용자 특성과 많은

부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층 또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으로 YTN과 @YTN의 채널이용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편성 수립이 좀 더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률 조사를 실시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났다. 지금의 시청률 조사 자료는 패널수와 조사방법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지상파DMB특위는 시청률 조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청률 조사 2기'를 준비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 2기 시대를 맞아 @YTN의 채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과제는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다.

2011년 1월은 @YTN에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기간이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과 즐거운 소식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YTN이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만희 YTN DMB 채널운영팀장







# 분장 받는 남자의 어색한 고민?!

## 장면 1 : 앵커 자세 삐딱...시청자 불편!

나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조금 높다. 가끔 중계방송 할 때 지적을 받긴 했지만, 큰 문제없이 입사 5년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앵커팀 발령 첫 주, 방송 심의는 매서웠다. “앵커 자세 삐딱...시청자 불편”

기사 읽기도 벅찬데...자세까지! 선배들과 함께 고민했다. 상의 오른쪽 어깨에 이른바 ‘뽕’을 넣는 방안부터 자세교정까지..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선택한 결정! 오른쪽 엉덩이 밑에 A4용지를 깔고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것! 앵커 생활 석 달 차에 접어든 요즘..난 항상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A4 이면지 서른 장 정도를 집어서 들어간다. 그렇게 ‘자세 삐딱’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지금 내게 A4이면지는 심리적 안정감과도 닿아있다. ^^

## 장면 2 : 분장 받는 남자의 눈썹 고민?

‘자세 삐딱’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세 보정’으로 한 고민 털었다 했더니 이번에는 눈썹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앵커 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내 눈썹이 결코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의 비대칭과 더불어, 오른쪽이 더 눈썹 숲이 많다는 분장실의 지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눈썹을 밀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눈썹은 밀렸고 균형은 꽤나 ‘부끄럽게’ 찾아왔다.

## 장면 3 : 분장받는 남자의 클렌징 고민?

어느 순간 피부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에는 피부 이상이 복병으로 등장한 것! 클렌징을 한다고 했는데도 얼굴에 남아있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느낌! 평소 피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나였지만 무언가 거칠어지고, 때로 불그스름하게 변하는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 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평소 쓰던 튜브형 클렌저 대신 오일 클렌저를 사용해 보라는 권고... 전격 수용했다. 매일 밤 방송을 마치고 오일 두 방울로 난 분장을 지워낸다. 그렇게 ‘피부 트러블’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참고로 클렌징 오일은 튜브 클렌징 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고민들로 지난 두 달여 시간을 보냈다. 중요한(?) 주변적인 고민들을 해결하고 닳더니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본격적인 과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 과제 1) ‘내 입은 왜 붙어 있는가’

속보가 났다. “강릉 울진 특별재난지역 인정 복구비 선지급” 파랑과 빨강이 조화를 이룬 ‘공포의’ 속보문발. 다행히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두세 문장 정도만 애드리브를 해도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문발을 읽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머릿속에 담긴 내용들은 목젓을 지나 입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 입은 붙어있었다. 입이 떨어졌지만 고작 내가 한 멘트는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속보는 적어도 내겐 무서운 놈이다. 알고 있는 것을 여유 있게 풀어내기에 난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매일 저녁 스튜디오 안에서 느끼고 또 느낀다. 물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선배들은 애써 위로하지만 자괴감은 꽤나 깊다.

## 과제 2) “말 안 들으면 런다운에 단신만 넣어버린다!”

가끔 내가 말을 안들을 때 우리팀 선배 피디는 길게 잔소리 같은 것을 절때(?) 하지 않는다. ‘런다운에 단신을 때려넣겠다’는 험박형 농담 한 마디면 나는 아무 대꾸없이 선배의 말을 따른다. 웃자고 한 말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연 단신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돌이켜 보면 수습기자 시절 나를 가장 괴롭히고 선배들에게 혼나게 만들었던 것은 ‘고약한’ 단신이었다. 리포트가 감각적 논리라면 단신은 이성적 논리

다.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그래서 단신은 기사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렵기 마련! 하지만 앵커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단신은 쓰기도 어렵지만 읽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 술에 취해서도 단신 열 개 읽고 자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건만, 난 오늘도 단신이 두렵다. 특히 이브닝 뉴스 말미를 장식하는 ‘네트워크 뉴스’의 ‘단신 퍼레이드’는 매일 저녁 나를 땀나게 만든다.^^

## 과제 3) “형, 나 1일 스탠트맨 체험할 수 있을까?”

충무로에서 꽤 잘나가는 영화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앵커리포트 아이템으로 ‘스탠트맨 1일 체험’을 제시했다. 앵커가 나와서 현장 체험 취재를 한다니 반가워하면서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직 취재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장을 취재하는 앵커...그렇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앵커로서의 기본이 다져지고 나면, 현장을 취재하는 앵커가 되고 싶다. 현장과 스튜디오를 오가며, 기자들의 땀방울이 서린 리포트를 전하면서도 내 현장 취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앵커의 모습. 지금은 좀처럼 손에 잡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선배들처럼’이라는 생각으로도 전적 설렘을 가슴 속에 품는다.

## 장면 클로징

앵커가 되기 직전 난 2년 가까이 영화기자 생활을 했다. 그 덕에 나는 충무로의 내로라하는 감독과 배우들의 방송 모니터를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자랑 좀 하자면 가족, 친구, 영화인 등 내 주변 인맥을 통틀어 내 첫 방송을 가장 먼저 모니터 해 준 사람은 강우석 감독이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작품 속 그들의 생각과 모습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듯, 이제 그들이 내 뼈딱한 어깨부터 발음에 어조까지 세세한 모니터를 해준다. 그때마다 나는 영화기자 생활동안 내가 그들에게 보였던 것들을 그들도 진심으로 느껴줬을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다짐한다. 이제 막 앵커로서 첫 발을 내디딘 초차 앵커로서, 스튜디오 안팎에서 펼쳐지는 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시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이미 막은 올랐다!

이승현 앵커팀

# 겨울 끝자락에 다녀온 우이령길

오늘은 산악회의 겨울 정기 산행이 있는 날. 약속시간인 9시 반이 가까워지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이번 산행은 북한산 우이령길 구간으로 우이동에서 송추 교현리로 이어지는 둘레길 산행이다. 67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지난 40여 년간 길이 폐쇄되었다가 2009년 7월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우이령길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만 등반을 할 수 있으며 3시간 정도면 여유 있게 산행할 수 있다.

최종 집결지인 우이파출소에 모여 인원을 확인하니 열한 명이다. 가을 지리산 산행이 2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단출하지만 호젓한 우이령길엔 적당한 숫자다. 10시, 출발이다. 혹독했던 겨울의 끝자락에 나선 우이령길 산행은 따사로운 햇살과 파란 하늘이 봄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음을 느끼게 했다. 우이동계곡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산에서 먹을 새참을 사러 간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지난 겨울 한파에 상수도가 얼어붙어 영업하지 못했다.

20여 분을 올라가 우이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여 사전 예약한 인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우이령길 산행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풀린 날씨 덕에 길에는 눈이 녹고 비포장 흙길이라 걷기에 편안했다. 걷다 보니 맨발로 걷기체험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한번 시도해 봐도 괜찮을 듯싶다.

산길을 걸어 소귀고개에 거의 다다를 무렵, 대전차 장애물인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들이 양옆에 우뚝 서 있다. 이곳을 지나 조금을 더 걸으니 안보체험관이 나오고 넓은 쉼터가 나온다. 이곳에서 새참으로 가져간 막걸리로 목을 축인다. 역시 산행 중에 먹는 한잔의 막걸리 맛이 산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겨우내 물이 얼어 장사를 못했다는 슬픈 사연(?)을 간직한 도토리묵의 씹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다.

쉼터에서 교현리 쪽으로 조금 내려오니 오봉 전망대가 있다.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오봉은 한마을의 다섯 총각이 원님의 외동딸과 혼인을 하기 위해 다섯 봉우리에 바위를 던져 올리기 시합을 하여 기묘한 형상을 하게 되었다는 유래를 갖고 있다. 오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니 유격장광장과 석굴암으로 가는 삼거리에 다다른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라는 비석을 따라 암자에 오르는데

상당히 가파르다. 둘레길과는 달리 시멘트로 포장된 급경사 길을 오르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 송글 맺힌다. 석굴암의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각(三聖閣)의 불전함에 약간의 시주(?)를 하고 소원도 빌었다.

석굴암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경치는 한 폭의 산수화 같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의 본 모습은 보기가 어려운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경치는 일품이다. 암자의 장독대에 나란히 줄을 맞추고 서있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정겹게 느껴진다. 다녀오는데 30여 분 정도가 걸리는 석굴암은 우이령길 산행에서 지나치면 후회할만큼 꼭 챙겨 봐야 할 곳이다. 내려와 교현리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넓은 길이라 회원들과 삼삼오오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최종 목적지인 교현리 탐방안내센터에 이르렀다.

세 시간에 걸친 겨울 산행이 무사히 끝났다. 겨울 정기 산행은 강원도 오대산을 가기로 했었지만, 산불을 우려한 입산통제로 계획을 변경해 우이령길로 오게 됐다. 곳곳에 남북 대치의 흔적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고 고즈넉한 곳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단풍나무나 활엽수가 많고 맨발 길도 있어 가을에 오면 훨씬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악회는 처음에는 탐험동호회로 출발해 현재 사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분기마다 정기산행을 하고 타 산악회와도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 산을 즐기는 아마추어들의 모임이다. 혼자서 나가기엔 어려운 금강산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산을 다녔다. 특히 인천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다녀온 한라산 겨울 산행과 선상 불꽃놀이, 댄스파티는 잊지 못할 추억이다. 또 인제 방태산 자락에 있는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의 비경을 간직한 아침가리계곡 트레킹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충전을 원할 때 맛과 멋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켜 줄 럭셔리 산악회와 함께 해보면 어떨까? 산을 못 탄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번 산행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산행에서 가장 힘든 코스는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다.

박종대 차장 제작기술부 (산악회 총무)



## 포토 뉴스



노사 타임오프제 조인식 (1. 14)



제2회 희망의 우물 콘서트 (1. 22)



개별SO 발전협의회 간담회 (2. 11)



신사옥 시공업체 선정 설명회 (2. 21)

## 게시판

- **입사** 송우빈 경영관리팀 1. 24
- **퇴사** 김정현 차장대우 사회2부 2. 16 / 박홍규 타워운영팀 1. 31 / 전가영 산업부 1. 26 / 김영준 경영관리팀, 윤병조, 박 영 타워운영팀 12. 31
- **전보** 박철원 도쿄지국장, 김상우 부장대우 국제부 2. 21 / 박기용 마케팅 마케팅 4팀장 2. 18 / 정지원 차장대우 채널TFT팀 겸직 1. 11